靉


한 낮에는 삼복더위를 무색케 할 정도로 햇볕이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는 긴 소매 옷을 끼내 입어야 할 만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일교차가 20℃ 가까이 난다니 사람도, 동물도 건강관리에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낫해를 보기 심상이다.

환절기 하면 자연스럽게 따오르는 단어가 감기가 아닌가 싶다.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홍역을 세 차례나 휴대게 치른 양계인으로서 감기의 '감' 자만 들어도 음음에 오싹 전율이 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라도 모르겠다.

연산오계의 국가적 관리 필요

필자는 국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 265호 연산오계 지킴이 다. 5대 조부께서 조선의 철종 임금께 연산오계를 전한 이래
6대계 대를 이어 연산오계의 순수형통을 지켜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0년 연산오계를 우리 나라의 재래종으로 인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사람이 가르는 가축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연산오계를 비롯하여 진돗개, 제주마, 삼략개 등 모두 4종이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들은 이 땅의 토종으로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연 유산이자 유전자원이다. 금전으로는 현산할 수 없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조차 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연산오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혈통보존 활동에 필요한 사육비조차 사재를 투여 해결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

관련 법률이 없으니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은 문화재법의 포괄적 용을 받는다. 석굴암과 조선왕조실록, 반달가슴 곰의 관리에 적용되는 법이 담과 개, 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문화재 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 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연산오계는 개인 소유이므로 국가는 일단 책임에서 자유롭다. 막말로 내가 연산오계를 더 이상 기를 형편이 못 되어 혈통보존 활동을 중단하려고 그대로 멸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는 중견 국가의 자연문화재 관리 실패가 이렇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AI 발생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

세 차례의 AI 파동을 겪으면서 말로는 이루 다 혈연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 을 겪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AI '덕분에'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리나 아닐 수 없다. 연산오계가 AI로 인해 첫 피난을 떠난 때는 2006년 12월, 문
화재참에서 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중앙 일간지를 비롯해 방송, 잡지 등에서 취재 경험이 복잡했다. 날고 피난을 간다는 동 보도의 핵심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식 황록거리 위주여서 악간 실망스럽긴 했지만 연산오계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올 4월 초,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 것도 인론이었다. 타 지방사
처단체의 반대로 피난갈 곳이 없어서 예방을
한다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고마운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피난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올봄의 AI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 면에서도 최악의 상처를 남겼다. 개발에처럼
모두가 진실하고 있는 틀에 쳐들어와 삶시간에
전국을 유린하고, 서울에 침투해 젊 국민을 공
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인체갑염 우려가 있
다는 보도가 나가자 사람들은 더욱 믿었었다. 
나는 답을 기른다는 이유만으로 기피의 대상이
됐으며, 멸종한 연산오계들은 AI를 빼프리는 철

세 취급을 받았다. 공동시설에 전시용으로 임대
했었던 연산오계들이 줄줄이 소환했고, 피난지에
사료를 날라다 줄 때도 포대 자루가 보이지 않
도록 고통 싸매야 경제지역을 통과할 수 있었
다. 전쟁이 따로 없었다.

두 번의 전쟁 모두 한 마디로 갈없절망, 우암
좌왕이었다. 작전도 없었고, 전시(戰時) 행동요
령도 없었다. 피난을 떠나야 하는지, 집에 머물
러 있어야 하는지, 피난을 갓다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의 명령을 뒤따야 하는지, 아
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천연기념물 피난길

당초 내 계획은 이번에는 피난을 떠나지 않겠
d는 것이었다. 2003년 AI가 국내에 첫 사례한 이
후 나는 닭들의 면역력 증강에 힘을 쏟았다.
같은 해 사스(SARS, 급성호흡기중후군)의 공포
가 전 세계를 감타했을 때 린달과 김지 등의 발
효식품이 사스의 예방에 유효하다는 연구결과
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린달을 얻어 닭
들에게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항
생제와 방부제, 각종 화학약품이 병력된 배합사
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제, 항토, 항생단,
병원가루 등을 토착미생물로 발효시킨 토토에
섞어 먹었다. 마실 물에는 흥삼액과 매실즙, 자
체 배양한 미생물 등을 타 먹이고 소독약을 목
초액으로 바꾸는 등 점차 유기축산 체제로 전환
했다.

연산오계가 AI에 노출될 위험성을 매우 낮았
다. 편한 수선을 피워 닭들에게 스트레스를 주
고 국가예산을 납비할 필요가 없었다. 농수산식
품부의 ‘살처분’ 방침이 유일한 결론이었다.
현상은 문화재이므로 AI에 걸리지 않는 한
상처받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문화재청의 요
청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문화적 가치는 경
체 논리에 의해 단변에 제압되었다.

이러저도 저리지 못하고 있는 사고 검체에
서 발생한 이후 남하하던 AI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경기도 평택에 출현했다. 마치 혐오를 당
하는 형세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양히 인문도를 보고 피난지를 제공
하겠는 고마운 분들이 여럿 있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담들을 세 곳으로 분
산하기로 하고 동선을 고려해
피난지를 정했다. 소속 지
방자치단체와 인근 양계
농가의 반발이 우려돼
피난은 한발짝, 극비
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피난생활은 2개
월간 지속되었다. 이사 스트
레스로 인한 후유증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첫 번째는 중계 2천수만 피난
을 떠났지만 이번에는 봄에 막 부화를 시작한 상
태에서 아기 병아리들과마지막 7천5백여 마리
가 피난길에 올랐다. 병아리는 매우 좁
더 예민해서 카니발리즘 증상이 한동안 기승을
부렸다. 피난기간 동안 죽은 닭은 병아리 121마
리, 중계 15마리에 달했다. 이사 직후 중계의 산
란율은 20% 포인트나 줄었고, 수정율과 부화율
은 각각 11% 포인트, 60% 포인트 급락했다.

지식 같은 닭들이 중담당하는 장면을 하필적
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양계농가들을 생
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다. 나만 유독 배부
른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 좌충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현상은 물론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총계나 실용계가 아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문화재이자 순수혈통을 지닌 원본
총계(GGPS)이다. 조상 없는 후손 없듯 GGPS
가 없으면 국내 양계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
너진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보호법 필요

거듭 강조하건대 천연기념물은 국민 모두의 자
산이다. 한 집안의 가보라는 이유로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법
은 고치고, 없는 법은 새
로 만들어서도 몇 년
지 않은 토종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
다. 우리 선조들과 이 땅
에서 수백 년 간 함께 호흡
하며 살아온 토박이 동식물들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

상해에 봉해우를 때 온 국민은 마치 자기
집 복물을 잃은 것처럼 안타까웠다. 문화재를
지키는 힘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온
다. 실용계를 기르는 양계인들은 물론이고 문화
재청과 농식품부도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탈피
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주었으면 좋겠다.
차제에 AI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단계별 행정요
령을 단 단백연을 만들고, 이가 종(種)의 체
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보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
히 기대한다. 양계